



제22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익산시협의회 출범

대통령 직속의 한법상 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민주평통) 익산시협의회가 25일 모현시립도서관에서 제22기 출범식을 개최하고 힘찬 출발을 알렸다.

이날 행사는 정현을 익산시장과 김경진 익산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자문위원 등 150여 명이 참석했으며, 협의회장이 취임, 위촉장 전수, 자문위원 선서, 협의회 활동방향 논의 등을 위한 정기회의 등이 진행됐다.

정현을 시장은 자문위원 위촉장을 전수했으며, 축사에서 "제22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출범과 자문위원 위촉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평화통일 기반 조성이라는 막중한 책임과 사명감을 바탕으로 자문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활동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제22기 민주평통 익산시협의회는 도·시의원으로 이뤄진 지역대표 자문위원 28명과 직능대표 자문위원 103명을 포함해 총 131명의 자문위원으로 구성됐다. 앞으로 2년간 '국민과 함께 만드는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을 목표로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익산=이재춘 기자



민주평통 완주군협의회, 제22기 출범·정기회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완주군협의회(협의회장 김용현)가 지난 24일 오후 3시 완주군청 대회의실에서 완주군협의회 대행기관장인 유희태군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전북지역회의 김영복부의장, 자문위원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2기 출범식 및 2025년 3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1일부터 입기가 시작된 제22기 민주평통은 2027년 10월 31일까지 2년간 평화 공존과 번영의 한반도 구현을 위해 평화통일 의견수렴 및 정책건의, 평화통일기반 조성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날 출범식은 △개회식 △위원장 전수 △자문위원 선서 △제22기 민주평통 활동방향(안) 등 보고 △협의회 운영 및 주요 사업계획 관련 자문위원 의견수렴 순으로 진행됐다. /완주=염재복 기자



남원 사회복지협의회, 사랑의 김장김치 지원

남원시 사회복지협의회(회장 노재규)는 최근,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를 통해 관내 저소득층 120여가구에 김장 김치를 지원했다.

이번 행사는 겨울철 부식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협의회가 주관하여 추진한 것으로, 총 1,200포기의 김장김치(15kg)를 전달했다.

나눔을 위해 김춘수 남원불교대학 학장이 배추 1,200포기와 무·갓등을 기증하고, 협의회 임직원 13명과 자원봉사자 3명 등 총 16명이 진행해 정성을 보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 아영면 다문화가족 대상 찾아가는 간담회

남원시 아영면 행정복지센터는 최근, 시 가족센터와 관내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2025년 찾아가는 가족 교육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다문화가족의 관계 향상과 가족 기능 강화를 목표로 마련되었으며, 다문화 이해 교육인 '다같이 행복 플러스'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부모와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참여 가족들은 교육을 통해 서로의 경험과 정보를 공유했으며, 바세린을 활용한 보습제 만들기 체험 등 다양한 활동을 함께하며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다. /남원=김기두 기자

너와 나의 연결고리... 소중한 추억 만들기

원광보건대 사회복지과, 제21회 수어경연대회 개최

우리 주위에는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있는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농인들이 있다. 이들의 언어인 수어에 우리가 먼저 다가가서 관심 갖고 배우려하고 해야 한다.

원광보건대학교 사회복지과(과장 김경진, 김석준)는 지난 19일 WM관 4층 컨벤션홀에서는 너와 나의 연결고리, 소중한 추억 만들기 제21회 수어경연대회를 열었다. 1학년 주·야간 학생들이 13팀으로 나뉘어 오후 6시부터 3시간 동안 열정과 감동을 전했다. 이번 대회는 특히 내년에 원광대학교와의 통합으로 인해 마지막 대회로 그 어느 때보다 학생들의 마음과 열정이 뜨거웠다. 그리고 경연대회에서는 과격적인 13팀 전 팀이 수상을 하는 따뜻한 분위기도 연출이 되었다.

"농인들을 바라보는 일반 청인들의 시선이 편견을 버



리고 한결같기를 원하며, 수어 단어나 문장은 있는 다 해도 농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은 잊지 않기를 바란다"고 28년째 수어를 지도하는 최현숙 수어통역사는 언제나 말한다.

학생들에게 이번 대회는 특히 더 서로를 연결함에 있어 도전이자 배움, 그리고 잊지 못할 추억이 되었다. 수어는 언어이고, 수어는 배려이다. 그리고 배려는 사회복지의 시작이다. 원광보건대학교 사회복지과 졸업생, 재학생들은 앞으로 사람과 사람을 사랑으로 이룰 거라 확신한다.

조록우산어린이재단 익산후원회 유기달 회장 원광보건대학교 사회복지과 동문회 김선남 회장, 나래코리아 김생기대표, 채나예슬단 김채나 단장, 동산노인주간보호센터 김명란센터장, 사회복지과 선배인 탁재문·오경식·김미정·오성진·나광주씨와 특히 익산시청 김경화 과장의 헌신으로 성대하게 마칠 수 있었다. /익산=이재춘기자

양종철 전북대 병원장, 2027년 신경정신의학회 학회장 선출

전북대학교병원 양종철 병원장이 최근 개최된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대의원총회에서 2027년 회기 학회장으로 선출됐다고 25일 밝혔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국내 정신의학 분야를 대표하는 권위 있는 학술단체로서, 학회장은 연구, 교육, 정책 전반을 총괄하며 정신의학 발전을 견인하는 중책을 맡고 있다.

이번 선출은 양 병원장의 오랜 학술적 업적과 탁월한 전문성, 그리고 학회 운영 경험을 높이 평가한 결과다.

그는 대한신경정신의학회 학술이사, 교과서발행위원장, 전문의사회고사위원장, 미래전략특별위원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했으며, 한국정신신체의학회 회장으로서도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다.

양종철 병원장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학회의 위상을 한층 더 높이고 정신의학 분야의 혁신적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정신건강이 사회 전반에서 중요한 가치로 자리매김하는 만큼, 국민 정신건강 증진에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기여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 병원장의 이번 선출은 국내 정신건강 분야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전북대병원의 위상 강화는 물론 전국 정신의학 연구 및 임상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오상근 기자

진안군 동향면, 제2회 주민자치 어울마당 성황리 개최

진안군 동향면은 25일 동향면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박관순) 주관으로 면 행정복지센터에서 2025년 "제2회 주민자치 어울마당"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어울마당은 주민이 주체가 되는 참여형 축제로 주민자치 프로그램 발표회, 체험부스 운영, 다양한 작품 전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돼 지역주민의 큰 호응을 얻는 계기가 됐다.

행사는 봉곡마을에서 쓰레기 재활용을 실천하자는 내용을 담은 "봉곡 밋쟁이" 영상 시청과 사물놀이 사전공연으로 흥을 돋우고, 본행사로 기타 연주, 어린이합창단, 어르신들의 사냥곡 색소폰 연주, 고고장구 등 그동안 바쁜 일손 중에도 틈틈이 연습하여 갖고 닦은 실력을 마음껏 뽐내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

동향면 주민자치위원회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의 문화·예술 향상에 기여하고 있으며 주민이 주체가 되는



부안 주산면, 특화사업 '청춘영화관, 청춘배움터' 추진

부안군 주산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공위원장 나용성·민간위원장 박성철)는 지난 24일 주산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자체 특화사업 '청춘영화관, 청춘배움터' 사업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매년 추진하고 있는 특화사업으로 관내 취약계층에게 다양한 교육과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는 협의체위원들과 사업참여자 30명에게 부안군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한 자살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관내 다육 이야기 농장의 프로그램을 활용해 반려식물 다육이 화분 만들기 프로그램을 체험했다.

박성철 민간위원장은 "이번 자살예방 교육과 반려식물 화분 만들기 체험이 어르신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교육과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체험 활동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지역자치 실현과 주민화합의 장으로 매년 발전하고 있다. 박관순 위원장은 "이번 어울마당은 주민이 서로 소통하고 마을의 활력을 느낄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김제시-김제경찰서, 어린이 약취 등 합동 캠페인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25일 김제경찰서와 함께 등·하교 시간대 아동 대상 범죄 예방을 위한 어린이 약취·유인 예방 합동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아동 범죄 예방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시민들의 안전 의식을 높이고 보호자들의 경각심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시민들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핫팩'과 함께 실종 예방 수칙, 모르는 사람의 유인 대응 방법, 보호자 지도 요령 등을 안내했다.

김제시와 김제경찰서는 아동 대상 범죄 목적 시 신속한 신고가 피해 방지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적극적인 신고 참여를 요청했다.

정효곤 도시건설국장은 "추운 날씨에 시민들이 즉시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을 제공해 관심과 참여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도태 기자



남원 백제약국, 남원시에 이웃돕기성금 기탁

남원시는 25일, 남원 백제약국(대표 유은상)에서 연말을 맞아 지역사회에 취약계층을 위한 성금 1천만 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백제약국은 2017년부터 매년 연말연시, 남원시의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1천만 원씩 기부해 오고 있으며, 기부금은 남원시 취약계층의 지원에 중요한 재원으로 사용되며, 지역사회에 따뜻한 희망을 전하고 있다.

유은상 대표는 "약국 운영은 남원시민들이 이끌어주셨기에 가능한 일이며, 앞으로도 꾸준히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고 나누는 마음으로 기부를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이에 이성호 남원시 부시장은 "백제약국의 지속적인 나눔 활동은 남원시 지역사회에 큰 귀감이 되고 있다고 감사로 전한다며, 기부금은 어려운곳에 소중히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고창군의회 임종훈 위원장, 소상공인연합회 공로패

고창군의회 임종훈 산업건설위원장이 11월 19일 고창군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전지호)가 주최한 2025년 제4회 소상공인의 날 행사에서 공로패를 받았다.

이날 행사에서는 소상공인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유공자들에게 각 기관 표창이 수여되었고, 특히 임종훈 산업건설위원장은 고창군 소상공인연합회 3기 회장을 역임하면서 고창군 소상공인연합회 발전의 초석을 마련하였을 뿐 아니라 헌신적인 노력과 소상공인의 발전을 위해 기여한 공을 크게 인정받아 공로패를 수상하게 되었다. /고창=김영식기자

남원 동충동, 취약계층 대상 전기장판 지원

남원시 동충동 행정복지센터(동장 김차남)는 지역사회 취약계층 지원과 주민 소통 증진을 위해 11월 17구 찾아가는 소통 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가정방문을 통해 단열이 취약한 가구를 파악하고, 겨울철 난방 부담이 큰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전기장판을 직접 전달하는 맞춤형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아울러 에너지바우처 사용 상세 안내, 안전한 난방용품 사용법, 누전·과열로 인한 화재 예방 수칙 등 동절기 안전관리 정보를 안내하며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김차남 동장은 "이번 지원이 겨울철 난방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 작은 힘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남원=김기두기자



남원 운봉청년회, 관내 취약계층에 털조끼 기부

남원 운봉청년회(회장 이경호)가 관내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털조끼 150개(약 20만 원 상당)를 기부하며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운봉청년회는 매년 연탄 생필품, 겨울 방한용품 등 계절과 지역의 필요에 맞춘 다양한 기부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며, 특히 단순한 물품 전달을 넘어 회원들이 직접 준비하고 참여하는 활동을 통해 공동체의 가치를 높이고 있다.

이경호 청년회장은 "지역 어르신들과 취약계층이 이번 겨울을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보내셨으면 한다"라고 전했다.

이에 이은주 읍장은 "매년 잊지 않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따뜻한 손길을 전해주는 운봉청년회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